

# 장흥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전환 목소리 높다

### 프로그램 부실·이용자간 마찰·후원금 제한 등 각종 불이익 직영 후 위탁 방침 안 지켜져... 군 “지방선거 후 전환 검토”

장흥군이 올해로 10년째 직영하는 노인복지관을 민간 사회복지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흥노인복지관은 지난 2017년 1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62평 규모로 개관했다. 지금까지 바둑과 당구, 탁구, 서양화, 농악, 국악 6개 동호회와 서예, 실용음악, 요가, 하모니카 등을 배울 수 있는 별도 강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개관 당시부터 직영과 민간위탁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군 당국은 2년 직영 후에 전문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직영상태를 유지해왔다. 복지관 이용자 김 모(69) 씨는 “단체장(군수)이

바뀌면서 복지관 이용 동호인들이 요구사항을 쉽게 들어 줄 수 있는 직영체제를 희망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간위탁 방침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지관 이용자간 마찰을 빚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는 게 이용자들의 불만이다. 일부 동호회는 7·80대 후반 연령층이 주도하면서 65세가 되는 신규회원 기회가 박탈되는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초청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관이 주도하다 보니 새로운 시대에 부응해 진행되어야 하지만 수요자의 요구를 맞추지 못하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직영은 민간위탁과는 달리 단체장이 선출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기금(국·도비) 공모사업도 예외 규정으로 묶여 프로그램 운영에도 제한이 많아 기존 것을 반복해 ‘다람쥐 쳇바퀴’처럼 운영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흥군 관계자는 “노인복지관 운영방식을 놓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고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내 17개 시·군 노인복지관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총 29개소 가운데 직영이 9개이며 20개소가 민간위탁체제로 운영되며 평가 기준은 민간위탁은 A등급으로 우수하다. 반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장흥을 비롯해 무안, 영암 등의 노인복지관은 최하위 F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김영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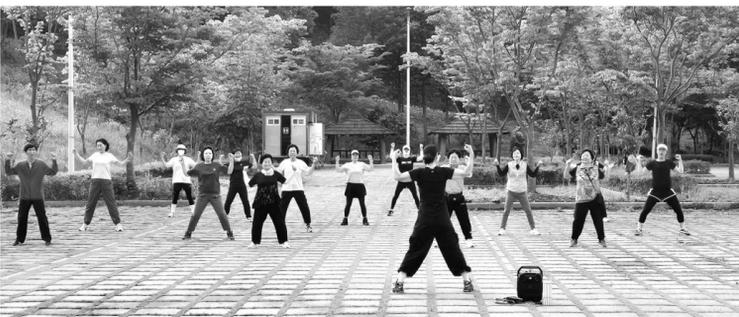


장흥군이 직영하는 노인복지관 전경.

## 강진군, 군민 건강 챙기기 ‘생활체조 광장 운영 사업’ 재개

### 다음달 9일부터 월~금 매일 운영

강진군이 ‘생활체조 광장 운영 사업’을 다음달 9일 재개해 고성사길과 종합운동장을 무대로 군민들의 건강과 웃음을 만들어 간다.  
이 사업은 고성사길 주차장에서 월~금 오전 6시 30분 ~ 7시 20분, 종합운동장에서 월~금 저녁 7시 30분 ~ 8시 20분까지 12월 말까지 매주 계속해서 운영한다.  
생활체조 광장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체조 전문 지도자가 직접 동작을 안내해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무료 운영과 참여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지난해 큰 호응을 얻으며 참가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이번 사업 재개를 통해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일상 속 운동 문화 정



생활체조 광장에 참여한 군민들 모습.

<강진군 제공>

작에 더욱 힘을 기울인다.  
김중윤 강진군 스포츠산업과장은 “생활체조 광장은 단순한 운동 프로그램을 넘어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쉽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군민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나주시 재정 3270억 상반기 조기 집행

### 64%...정부 기준보다 5%p ↑

나주시가 올해 상반기 3270억원 규모의 재정을 신속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를 낸다.  
나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상구 부시장 주재로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집행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은 64%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59%)보다 5%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기 발주 가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공정을과 집

행률을 동시에 관리해 집행 병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활용해 절차를 단축하고 상반기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등 재정 투입 속도도 높인다.  
나주시는 신속한 재정 집행이 소비·투자 촉진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중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위축된 지역경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재정 집행”이라며 “모든 부서가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함평군, LG전자와 농어촌 가전제품 순회서비스

### 업무협약 체결... 지역상생 모델로

함평군과 LG전자 고객가치혁신 한국서남부담당이 농어촌지역 주민의 가전제품 점검 및 수리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최근 LG전자 고객가치혁신 한국서남부담당과 ‘농어촌지역 가전제품 순회서비스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서비스센터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가전제품 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고령·취약 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함평군 관계자와 LG전자 고객가치혁신 한국서남부담당 관계자가 참석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LG전자는 전문 서비스 엔지니어와 이동 서비스 차량을 투입하고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주민 밀집 지역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비스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점검과 경정비가 포함되며, 가전제품 안전 점검과 올바른 사용법 안내, 디지털 가전 활용 교육도 함께 병행된다.  
함평군은 대상 마을 선정과 사업 홍보, 취약계층 발굴 등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 가구를 우선 지원해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용진 함평군 주민복지과 팀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의 전문성과 지자체의 행정 역량이 결합된 지역 밀착형 복지 모델”이라며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 더 화려해진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쇼 다음달 재개

### 고해상도 빔프로젝터 설치·신규 콘텐츠 도입 등 시설 보완 완료



야간경관과 분수쇼로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꽃강길 음악분수가 재개한다. 음악분수를 관람하고 있는 관광객들. <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쇼’를 다음달 13일 재개한다.  
화순군은 최근 분수쇼 운영에 필요한 고해상도 빔프로젝터 설치와 신규 콘텐츠 도입 등 시설 점검과 보완을 완료했다. 정기 공연은 평일 및 일요일·공휴일 1회, 토요일 2회 운영한다. 각종 축제나 행사 기간에는 요일과 관계없이 특별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은 봄(3~4월)과 가을(10~11월)에는 오후 7시, 여름(5~9월)에는 밤 8시 시작하며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군은 4월 17~26일 열리는 ‘2026년 화순 봄꽃 축제’와 연계해 “낮에는 꽃강길의 황금빛 유채꽃 경관을, 밤에는 음악분수의 화려한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행운 화순군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새롭게 단장한 음악분수가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쉽고 감동을 선사하는 명소가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장성군, 나눔 문화 확산 동암글로벌 등 기부 붐몰

장성군이 잇따른 지역사회 기탁 소식으로 나눔 문화 확산의 희망을 보이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동암글로벌주식회사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000만원과 패딩 점퍼 등 2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성군에 기탁했다.  
성금과 물품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저소득가구 주민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장성 출신인 김성수 동암글로벌주식회사 회장은 “고향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장성군에향운동본부(사무총장 박래섭)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각 100만원 ▲(주)에이케이(대표 김정근)가 500만원을 장성군에 기탁하는 등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나주 방문의 해’ 연중 ‘사계절 미식 이벤트’

### 나주밥상·홍어거리·관광 10선 연계 상품권·경품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나주시가 ‘2026 나주 방문의 해’를 맞아 미식과 관광을 결합한 사계절 이벤트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나주시는 나주밥상 지정업소와 남도음식거리(영산포 홍어거리), ‘나주 관광 10선’을 연계한 미션 참여형 행사 ‘맛으로 잇는 나주, 맛·잇·나 미식 여행’을 연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식 체험이 지역 관광지 방문으로 이어지고, 관광 소비가 지역 경제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절별 특산물을 활용한 나주 고유의 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겨울·봄·여름·가을 총 4회로 나눠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나주밥상 지정업소 방문 후 네이버

영수증 리뷰 또는 개인 SNS 후기를 먼저 작성해야 한다.  
이후 ‘남도음식거리’ 또는 ‘나주 관광 10선’ 중 한 곳을 방문해 인증사진을 촬영해서 영수증과 사진을 전용 링크(네이버 폼)에 제출하면 된다.  
미션 완료자는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며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 또는 나주볼 포인트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회차별 나주밥상 지정업소 최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경품도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세부 사항은 나주시 공식 SNS 채널과 주요 관광지에 준비된 홍보물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사계절 내내 나주의 밥상과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며 “맛과 여행,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특별한 경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담양군,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친정나들이·국적취득 지원

담양군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담양군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정 나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기간 고향 방문이 어려웠던 이주여성에게 항공료 일부를 지원해 가족과의 재회를 돕고, 국적취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 안정적인 체류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설계 프로그램과 교

육활동비 지원도 확대한다. 진로 상담과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 미래 설계를 돕고, 초·중·고 학생에게는 학습에 필요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해 학업 지속과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이주여성 대상 우리 문화 체험 활동도 운영한다. 문화 체험과 소통 프로그램, 정서 치유 활동 등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마음의 휴식과 소통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다문화이해교실과 온 가족 어울림 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힘쓰는 등, 지역 내 다문화가족의 든든한 지원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